

효성, 전남 환경 살리기 힘 보탠다

광양만권 자원 순환 프로젝트 협약...페어망 등 활용 의류 만들어 지역 기업에 제공

효성티앤씨가 전남 해역에 버려진 페어망을 활용해 섬유를 만드는 것에 이어 광양만권에 버려지는 페페트병을 수거해 지역 소재 기업의 작업복과 안전조끼 등을 만든다. 전남지역 바다에 버려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쓰레기를 순환시켜 바다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일 효성티앤씨가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광양만권에서 발생하는 버려진 페트병으로 '리젠'을 만들어 지역 기업과 업체에 공급해 지역사회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효성티앤씨는 지난 31일 김문선 나이론폴리에스터 원사 PU사장과 김지용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기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활성화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내에서 버려지고 있는 페페트병을 수거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항만 내에서 버려진 페페트병을 수거한다. 이렇게 수

거된 페페트병을 모아 효성티앤씨는 리사이클 섬유 '리젠'으로 생산한다.

리젠은 효성티앤씨가 환경을 생각해 100%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섬유로, 최근 많은 패션브랜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생산되는 리젠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근무복과 안전조끼 등 근로 현장의 필수제품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통해 다양한 굿즈로도 제작될 계획이다.

앞서 효성티앤씨는 전남도와 손을 잡고 페어망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전남지역 해역에 유실된 페어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오염을 줄여 해양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지역 해안에서 버려진 어망과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하면 효성티앤씨는 리사이클 나일론 섬유인 '마이판 리젠오션'을 생산하는 게 주요 골자다. '마이판 리젠'은 2007년 효성이 세계 최초로 페어망을 리사이클해 만든 나일론 섬유다.

효성티앤씨는 어망의 불순물을 제거해 원료의 순도를 높여주는 해중합설비 투자도 확대하고 있으며, 페어망을 활용해 월 150톤 이상의 '마이판 리젠오션'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는 국내·외 아웃도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하겠다는 게 효성티앤씨의 구상이다.

김문선 효성티앤씨 PU사장은 "광양만권에서 수거하는 페페트병을 비롯해 전남지역 해안의 페어망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나아가 사회적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전남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티앤씨가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광양만권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지용 광양제철소 소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김문선 효성티앤씨 나이론폴리에스터 원사PU사장.



지역 인재 산실 '희망 꿈나무'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1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5호와 6호에 대한 선정식을 열었다. 이는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장학사업 중 하나로, (재)광주은행장희는 지난 1981년부터 4000여 명에게 총 33억원을 지원해왔다. <광주은행 제공>

북광주세무서 임시청사 운영 이달 27일부터 신안동 한경빌딩

북광주세무서(서장 강병수)는 오는 27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임시청사는 신청사가 현재 부지에 완공되는 2023년 하반기까지 광주시 북구 경양로170(신안동)에 소재한 한경빌딩 1~4층을 임차해 사용한다. 북광주세무서는 청사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인 이달 24일부터 26일 사무실 집기류 등을 옮길 예정이다.

또 현재 청사 각 층에 나눠있던 세목별 상담창구를 임시청사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로 통합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병수 서장은 "납세자가 편안한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청사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1호차 캐스퍼 디자인 공개

경차나... 소형SUV나 현대차 캐스퍼 타세요



전 세대 아우를 젊고 역동적 디자인...얼리버드 예약 이벤트

광주형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만들어진 첫 차량이 베일을 벗고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자동차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캐스퍼' (CASPER·사진)의 외장 디자인을 1일 최초로 공개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양산하는 첫 모델이자, 현대차가 2002년 아토스 단종 이후 19년 만에 선보이는 경차다.

캐스퍼는 실용성과 안전성,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차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이기도 하다.

차명은 스키이트보드를 뒤집어 착지하는 '캐스퍼'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는 새로운 차급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판도와 고정관념을 바꿀 것이라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캐스퍼는 전장 3595mm, 휠베이스 2400mm, 전폭 1595mm, 전고 1575mm로, 1.0 MPI(다중분사)가 탑재된 기본 모델과 1.0 T-GDI(터보 직분사)가 탑재된 액티브 모델(터보 모델)로 구성된다.

외관 디자인은 당당함과 견고함을 바탕으로 엔트리 SUV만의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다. 전면부 디자인은 상단에 턴 시그널 램프, 하단에 아이코닉한 원형 LED 주간주행등을 배치, 넓은 스킵 플레이트로 개성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볼륨감이 돋보이는 펜더(휠 아치)와 높은 지상고로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뒷문 손잡이를 윈도우 글라스 부분에 히든 타입으로 적용해 세련된 인상을 더했고, 손잡이 상단 웃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캐스퍼

전용 캐릭터 엠블럼도 장착했다.

또 현대차는 이날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더한 액티브 모델 이미지도 선보였다. 액티브 모델은 전면부에 원형 인터쿨러 흡입구와 메쉬타입 그릴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는 개성과 젊은 감성을 추구하는 전 세대를 타겟으로 디자인된 차량으로 세대간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엔트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안전·공간성 등 엔트리 고객 요구를 반영해 개발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경차와 소형 SUV 사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우리 기술로 생산할 자동차의 이미지가 처음 공개돼 무한한 자긍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오는 15일 양산을 앞두고 최고 품질을 확보해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부터 캐스퍼 전용 웹사이트를 열고, '얼리 버드 예약 알림 신청 이벤트' 등 구매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07.02 (+7.75)
↑ 코스닥	1045.98 (+7.65)
↑ 금리 (국고채 3년)	1.417 (+0.022)
↓ 환율 (USD)	1157.20 (-2.30)

포도에서 만납시다
전혜진 시집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